

[협회 강원도회 산학협력대학]

강릉영동대학 전기과 학과장 인터뷰 ...

취재 | 제도연구실 손 영 선

Q 귀 대학과 저희 협회는 상호간에 긴밀한 협조속에 전기계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MOU를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략히 협약내용과 그 동안의 추진경과에 대하여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우리대학 전기과와 한국전력기술인협회 강원도회는 지난 2003년도부터 산학협력을 통한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하여 산학협력 MOU 체결하였습니다. 우리대학과 협회는 그동안 '산업체에서 Needs한 교육교재 개발', '전력산업분야에 대한 공동연구', '시설 및 실험실습기자재의 공동활용', '취업인력의 현장 실습 기회 제공' 등에 관하여 상호 협력을 하였으며 이러한 노력의 결과 학생과 산업체 모두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대학은 전력산업 전체 더 나아가 국가발전을 위하여 학계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계획입니다. 또한, 이러한 노력이 더욱 힘을 받고 추진되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학계와 산업계가 힘을 모으고 공동의 목표를 향하여 달려 나가야 합니다.

요즘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상생발전, 동반 성장이라는 말이 사회적 화두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대학과 협회도 이러한 지속적 발전과 함께 동반 발전을 위하여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대학과 협회와의 MOU체결은 더욱 의미가 깊다고 하겠으며 앞으로 더욱 돈독히 상생협력을 지속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Q 귀 대학은 '에너지특성화 장학금' 등 학생들을 위한 많은 장학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학과에서 운영중인 장학제도의 특성과 혜택에 대하여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우리 학교는 교내외에 많은 장학금을 유치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우수한 인력을 중점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설립자 장학금, 이사장 장학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인원 제한 없이 일정자격요건을 갖춘 경우 전 학년 동안 입학금을 비롯한 등록금, 기숙사 입사비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공계 육성을 위하여 우리 대학 이공계에 입학하는 입학생과 평생 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우리대학 졸업 후 재입학한 학생에 대하여 학생전원에게 입학금 면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은 이러한 여러 가지 장학혜택을 더욱 많은 학생이 누릴 수 있도록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와 기준 적합자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저소득층 면제 장학금을 시행하여 학생들이 큰 꿈과 희망을 가지고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Q 귀 대학 전기과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유비쿼터스 특성화학과"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u-city, 전력산업의 융복합화, 스마트그리드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유비쿼터스는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언제 어디서나 존재한다"라는 뜻으로 전력



김 세 흥
강릉영동대학 전기과 학과장

산업의 융복합화가 화두인 요즘, 더욱 각광받고 있는 분야입니다.

우리대학은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2006년 유비쿼터스 특성화학과로 선정되었으며, 유비쿼터스시스템(Ubiquitous system), 유비쿼터스개론(Ubiquitous theory) 등을 교과 과정으로 편성하여 학생들을 관련분야 전문가로 양성하고 있습니다.

녹색성장으로 대표되는 유비쿼터스와 유비쿼터스에 도시를 결합시킨 유비쿼터스도시, 스마트그리드 등은 우리 전력 산업에 새로운 기회와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해 줄 것이며, 우리 전기인들이 중심이 되어 선도해 나갈 것입니다. 미래는 우리 전력산업의 역할에 달려있습니다. 전력산업은 기술간 장벽이 무너지고 융합되면서 무안한 변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학문간 경계는 이제 커다란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추구하는 방향이 무엇이고 어떠한 것을 이루기 위하여 노력하느냐가 더욱 중요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유비쿼터스 스마트그리드 등은 전력산업을 중심으로 IT를 결합한 같은 길을 걷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추구하는 목표가 에너지절약, 효율적 사용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만큼 그 중요성과 연관성이 더욱 크다고 하겠습니다.

Q 귀 대학만의 교육커리큘럼의 강점이 무엇인지와 전기과 학생들에게 특별히 강조하는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우리 전기과에서는 전력기술 및 신재생에너지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2개 트랙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학문의 현장 적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수시로 현장의 수요조사를 통하여 교육커리큘럼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대학 교육이 현장 적용성을 확보하여야지만 학문으로써의 가치가 배가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학에서 배우는 교육과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기술의 갭이 심화된다면 교육은 방향성을 잃은 넓은 바다의 홀로 떠있는 배와 같이 바람의 방향 파도의 방향에 따라 중심 없이 흔들리며 추구하는 목표가 아닌 외부적인 요인에 의하여 표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우리대학은 항상 현장중심의 교육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기술의 수준, 기술의 양, 전문가의 수요 등을 꾸준히 분석하고 우리대학 전기과 학생들을 이러한 요구에 적합한 인재로 길러내기 위하여 우리과 교수들과 학생들은 혼연일체(渾然一體)로 뛰고 있습니다.

미래의 꿈이 시작되는 대학생활에서 학생들에게 앞으로의 기술자로서의 기술력과 인성을 길러줌으로써 밝은 미래의 희망과 꿈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학문이 기술변화를 예측하고 변화시킬 수는 없지만 모든 변화의 중심은 학문속에 있다고 강조합니다.

기초 없이 응용이 효과적이지 못하는 것과 같이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기술의바탕이 학문에 있는 만큼, 학문의 기초적 특성과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기술적 특성을 잘 융합하여 학생들에게 가르침으로써 전력산업을 이끌어갈 인재를 저희 강릉영동대학에서 키우고 있습니다. 전력산업의 밝은 미래에 우리 전기공학과 학생들이 중추적으로 이끌어 나갈 그날을 생각해 보며 우리대학의 교육 과정에 대한 강점을 마칠겠습니다.

Q 귀 대학에서 추진하고 있는 마스터플랜이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우리 대학은 거창한 마스터플랜 보다는 실용주의적 교육관을 확립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을 학생에게 제공하고 산업현장에는 현장에서 원하는 인재를 제공하여 줌으로써 교육기관의 허브기관으로써 발돋움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우리 대학의 슬로건이 미래를 향한 무한한 “상상”, “상상”이 즐거운 대학입니다. 대학 운영적 측면에서 슬로건을 간략히 뜻을 설명 드리면 학생들에게 그 틀이 가지고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상상할 수 있도록 돕고 그러한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 줌으로써 학생과 대학 모두 즐거워지자는 것입니다.

요즘 청년실업난 등 여러 가지 악재들이 우리 학생들에게 직면하여 있습니다. 물이 고이면 썩는 것과 같이 항상 방향성을 가지고 움직이는 대학이 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학생들에게 미래의 멋진 꿈을 상상하며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줌으로써 글로벌 한국을 이끌어 갈 역량 있는 강릉영동대학 학생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